

전통시장 활성화 토론회 토론문

송두범(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토론 분야(주제)** : 지역친화형 전통시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 **토론 요지** :

1. 충청남도과 시군차원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이 적정한가?

- 충청남도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은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시설현대화 및 문광형시장 육성은 국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영현대화의 일부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중임
-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중인 사업내용이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시장활성화방안이 아닌가?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평가와 성찰이 필요함
- 전통시장이 소비자들로부터 환영받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상인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전통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됨.
- 따라서, 가격경쟁력과 인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 얼굴있는 먹거리라는 신뢰를 확보할 때만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음.
- 이러한 면에서 도와 시군의 전통시장 지원책중의 상당부분은 안전하고 신선한 상품, 얼굴있는 상품이 판매되는 전통시장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2. 전통시장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지원이 상인들의 의존성향을 확대하지는 않았는가?

- 국회예산정책처(2012.5)에서 평가한바와 같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서 자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 전체지원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즉,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이 면제되어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주차장, 전기시설과 같은 기본시설에 집중되는 반면, 상인들의 비용분담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은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임.
- 따라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상인들의 참여가 없는 일방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임.
- 또한, 정부와 자치단체 지원의 많은 부분이 전통시장 상인들이 단순히 시장논

리에 근거한 소위 “도덕 없는 상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아니라, 호혜와 나눔의 장이 펼쳐지는 터로 인식케 하는데 공적지원의 의미가 있음.

3.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자치단체정책의 시작이 아닌가?

- 소비자들의 구매패턴 변화에 대한 이해와 지원시 고려사항
 - 소득향상으로 여가, 건강, 문화수요 증가
 - 핵가족 및 단독세대의 증가
 -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
 - 상품과 관련한 포괄적 서비스, 체험에 대한 요구 강화
 - 쇼핑에 할애할 시간의 감소
 - 환경친화적 상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
 -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증대
 - 현재의 고객 및 미래의 고객에 대한 판단 등
-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의 대안시장인지, 아니면 주류시장으로 육성할 것인지를 결정
 - 대안시장이라면 대형마트에서 맞볼 수 없는 전통시장만의 차별화된 시장환경 육성
 - 주류시장이라면 대형마크와 경쟁할 수 있는 원스톱쇼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
- 상인의 조직화는 전통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 업종(품목)별, 단지별 상인들의 조직화를 통해 영세 및 고령화된 상인들의 서비스제공 수준 증진
 - 협동조합과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질 높은 상품의 확보하고, 소비자들을 위한 가격경쟁력도 높임
-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시장이 주도하는 지원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 대해 공무원, 주민, 상인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는 것

전통시장 활성화 토론회 토론문

김민숙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기업팀장)

▣ 토론 분야(주제) : 전통시장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 토론 요지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부처 및 지자체의 다양한 예산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지원이 시설 지원으로 한정되거나 일부 사업기간의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으로는 실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예산 투입 이후 전통시장이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경제 주체로서 계속해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만남, 문화적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적인 성과를 갖출 때 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 육성으로 외부의 프로젝트팀들이 시장 상인회에 결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 사업기간이 종료되고 난 이후 시장 구성원 중심으로 자체적인 문화 창출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인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외부 지원 기간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시장 상인회 중심으로 자체적인 소통과 문화적 기능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오랜 기간 동안 정부 지원과 이권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상인회 역할을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자율적 공동체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원칙과 그에 대한 합의, 그리고 그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주체 등 다양한 구성요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통시장이 이러한 변화의 기회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틀로서 사회적기업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지역사회의 살림살이 경제 공동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환기, 문화적 공간으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연대의 장의 제공, 발생하는 이윤의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적극적 실천 등 사회적기업으로 요청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원을 통해 단순한 외형의 변화와 시설을 갖추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의 변화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충남에서 사회적기업을 통한 전통시장의 변화는 실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성과적인 측면도, 문제되는 측면도 모두 발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원칙과 지향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간다면 전통시장의 새로운 변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